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 '제주'

제주 전국체전 오늘 개막... 17개 시·도 2만4807명 참가

47개 종목 일주일간 열전... 광주 금 40개·전남 13위 목표

'도마의 신' 양학선, '꽃미남 저격수' 김준홍, '여자유도의 신데렐라' 김성연, '갑동의 양궁 드라마' 이특영, '금빛 찌르기' 박경두 등 인천 아시안게임 스타 선수들이 제주에서 고향의 명예를 드높인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28일 막을 올려 다음달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74개 경기장에서 일주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6시에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몽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주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해외동포 등에서 2만4807명(선수 1만8769명, 임원 6038명)의 선수단

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경기 종목은 육상·수영 등 모두 47개이며, 이 중 태권·수상스키·바둑은 시범종목으로 치러진다.

광주·전남에서는 2927명(광주 1264명·전남 1663명, 선수 2227명, 임원 7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시는 순위보다는 금메달 획득에 욕심을 내고 있다. 지난해보다 5개 더 수확해 4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선봉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유도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과 양궁의 이특영(광주시청)이 맡았다.

또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궁의 기

보배(♂), 육상의 김덕현(광주시청·멀리뛰기)·배찬미(♂·세단뛰기), 체조 양학선(한국체대·도마) 등 스타급단을 앞세워 광주정신을 드높인다는 전략이다.

볼링 백종윤(점단고), 보디빌딩 김형찬·김명훈(광주시체육회), 우수쿠파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 핀수영 김태균·장예슬(광주시체육회)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역도의 박철민(광주체고)은 인상·용상 모두 합틀이 3관왕에 도전한다.

전남의 1차 목표는 지난해 순위인 종합 13위 유지다. 전력이 약한 제주가 개최지의 이점으로 전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나 전북을 잡아 13위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선봉장은 인천아시안게임 3관왕을 거머쥔 볼링의 박종우(광양시청)와 '꽃미남 저격수' 김준홍(KB국민은행)·장대규

(KB국민은행)가 맡았다. 김준홍은 사전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또 육상의 김민(삼성전자·10000m)·백승호(삼성전자·5000m)·박주영(한국전력·마라톤), 수영 오희지(전남체고·평영 50m), 사이클 김지호(금성고·24km포인트 레이스)·김보배(미용고·스크래치), 역도 천문성(다화고·+105kg), 양궁 이은경(순천여고), 조정 고예령·신선하(문항고·무타페어), 롤러 김찬호(광양제철고), 우수쿠파 윤운진(순천시협회·산타 56kg)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제주 전국체전 사전경기 첫 번째인 27일 현재 전남은 사이클 여자 일반 단체스프린터에서 김승연·김희주·신혜수·이은지·임사랑이 동메달을 추가해 금 6, 은 4, 동 9개를 수확했다. 광주는 금 1, 동 1개를 획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95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 리허설에서 식전 공연 '호이호이 생명의 숨소리'에 출연한 무용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제주=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인천의 별들 총출동

박태환·이용대·양학선·오진혁 등 20개팀 열기 이어



베드민턴 이용대, 체조 양학선, 육상 김덕현

인천을 빛낸 스타들과 갖가지 사연을 지닌 선수들이 제주의 하늘을 수놓을 전망이다.

28일부터 제주에서 일주일간 펼쳐지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열기를 이어갈 최고 스타는 수영 간판 박태환(인천시청)이다.

박태환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0번째 메달을 수확, 한국 선수 사상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시상대 맨 위에 오르지 못해 아쉬움도 남겼다.

박태환으로서는 전국체전에서 다 소나마 아쉬움을 풀려고 나설 터다. 역시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사냥에 실패한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도 분위기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꽃미남 베드민턴 스타 이용대(삼성전기), 양궁 대들보 오진혁(현대제철), 양궁 대들보 오진혁(현대제철), 아시안게임 테니스 금메달리스트 정현(삼일고)도 아시안게임 열기를 전국체전으로 번지게 할 주인공이다.

이색 기록 보유자로 눈을 돌리면 카누 베드미안 이순자(전북체육회)가 눈에

된다. 이순자는 2000년 부산 전국체전을 지닌 선수들이 제주의 하늘을 수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은메달 2개에 그쳤으나 이번 대회에서 끊긴 금맥을 잇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부부, 형제, 자매, 부자, 쌍둥이 등 가족의 명예를 걸고 전국체전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다수다.

이 가운데 레슬링 남대부 자유형 57kg 김국현(한국체대)과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50kg급 김주현(북평고)은 탈복형제로 다른 가족보다 특별한 사연을 갖고 전국체전에 도전하는 경우다.

대구 사격 대표로 나선 김태영(대구 백화점)과 최수근(KBK기업은행)은 각각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 사수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 참가 선수 중 최고령은 대전 사격 트랩 대표로 올해 71살인 송석범(대전일반)이다. 막내는 오지영(수원여고)으로 2000년생이다. 오지영은 경기도 농구부 대표로 전국체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뉴스

“내년 국제도시 무안에서 만나요”



'제26회 전남도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5~27일 사흘간 구례군 일원에서 전남생활체육 동호인 6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생활체육회 제공>

전남도생활체육대회 성료... 여수시 '최우수상'

86만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6회 전남도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활력 넘치는 화합의 잔치를 펼치고 27일 막을 내렸다.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전남생활체육대회 축전에서는 임장식 최우수상에 여수시가 뽑혔다. 우수상에는 영광군과 진도군이, 장려상에는 구례군·화순군·고흥군이, 생

활체육 7330상은 함평군이 받았다.

또 화합상은 보성군이 수상했으며, 질서상은 목포시, 감투상은 장흥군, 응원상은 해남군, 우수연합회상은 정구연합회가 받아 기쁨을 나눴다.

종목별 경기에서는 목포시와 순천시 4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목포시가 볼링·육상·정구·테니스에서, 순천시는 검도·

베드민턴·족구·축구에서 정상에 올랐다. 여수시는 수영·태권도·탁구 등 3개 종목을 석권했다. 광양시는 그라운드골프·단체줄넘기에서, 화순군은 야구·에어로빅스체조에서, 완도군은 등산·새끼꼬기 및 짚신삼기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게이트볼·궁도는 구례군이, 배구는 영암군이, 합기도는 해남군이, 줄다리기는 나주시가, 씨름은 영광군이 정상을 차지했다.

이탁우 전남생활체육회장은 "대축전을 통해 결집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역량은 지속적인 전남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내년 국제무역도시 무안에서 더욱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다"고 밝혔다.

내년 제2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은 무안군생활체육회 주관으로 무안군 일원에서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